

統一新羅時代の金屬製舍利具

金 禧 庚

一、序 論

新羅의 佛敎傳來는 비록 三國中 가장 늦다 하더라도 오늘에 남은 佛敎 遺産은 他國을 斷然 능가하고 있다. 古墳의 出土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新羅의 金屬工藝는 일찍이 辰韓 때부터 매우 發達하여 이웃 日本이나 中國의 古文獻에 『金銀의 나라』로 記錄되기도 하였다.①

中國大陸에서는 때마침 中國文化의 二大 黃金期의 하나인 盛唐의 時期에서 그 완숙한 文化는 신라의 入唐使節이나 留學僧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傳達되어 新羅文化에 많은 影響을 끼쳤다.

더우기 慈藏法師에 의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傳來는 佛舍利信仰思想을 高調케 하였고, 建塔事業을 促進하여 新羅王京을 塔塔雁行 寺寺星張이라고 그 壯觀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塔婆는 원래 佛陀의 舍利를 奉安하기 위한 築造物이며 舍利容器는 敎祖의 舍利를 直接納入하는 器具인 까닭에 그 製作에는 온갖 精誠을 다하였고, 이를 보호하고 莊嚴하기 위한 莊嚴具 또한 最高의 技術과 材料로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佛經에는 舍利具에 대한 별 다른 規範이 定해 있지 않아 佛敎가 流轉된 國家나 地域, 風習, 時代에 따라 나름대로의 容具가 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舍利具는 그 나라 工藝의 意匠과 技術의 歷史를 엮은 것이라 할 수 있겠고, 銘文이 있을 경우에는 塔婆建立의 年代考證에 重要한 구실을 하게 된다.

新羅人의 信仰 밑바닥에 깔린 舍利信仰에 대하여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

舍利란 梵語(Sanskrit)의 Sarira를 音譯한 것으로 그 말뜻은 身體인 佛敎에서는 釋迦牟尼의 身骨(眞身舍利)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佛陀의 精神이 담긴 佛經은 法身舍利,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高僧들의 僧舍利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나라 文獻에서 佛舍利의 傳來를 傳하는 記錄으로는 三國史記卷四 眞興王十年條에 梁나라에서 佛舍利를 傳하니 眞興王이 奉迎하였다고 잘 말하게 「十年春 梁遣使與入學僧覺德 送佛舍利 王使百官奉迎 興輪寺前路」라 되어 있다. 또 三國遺事卷三 塔像第四 『前後 所將舍利』條는 거의 舍利에 관한 기록이며, 善德女王 貞觀十七(六四三)年 癸卯年에 慈藏法師가 佛頭骨, 佛牙, 佛舍利 百粒과 佛陀가 입으셨던 緋羅金點 한 벌을 가져왔다 는 기록이 있다. 이때 가져온 舍利는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皇龍寺九層木塔에, 하나는 太和寺塔에 또 하나는 袈裟와 함께 通度寺 戒壇에 두었는데, 나머지는 소재가 不明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 알려진 記錄이다. 이와 같은 佛舍利信仰이 中國에서는 最高에 達하였던 것이 隋文帝의 仁壽年間(六〇一~六〇四)인데 印度 阿育王의 八萬四千塔의 故事에 따라 全國 百餘州에 『仁壽舍利塔』을 造후 三回에 걸쳐 建립한 것은 너무나 有名한 事實인데, 이러한 信仰의 餘波가 韓半島의 新羅에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新羅造塔의 中心經典인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인데 造塔功德을 說한 經典이다. 이 經은 親貨國沙門 彌陀山(唐에서는 寂友라함)이 長安에 머물면서 譯經한 것인데, 그 時期를 中宗嗣聖二年 則天武后의 長安四年(七〇四 新羅聖德王四)으로 보고 있다.②

이 經의 功德에 대하여 佛陀를 奉安한 塔이 있는 곳은 一切 邪鬼나 나쁜 짐승이나 災難이 없고, 항상 모든 하늘 神將들이 그 나라를 수호하여 守護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③

이 經의 精神은 新羅佛敎의 護國護法精神으로 直結되었고 新羅人의

思想的 基調를 形成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리하여 舍利信仰에 뿌리를 박고 佛塔의 功能을 信仰한 新羅人들은 無垢淨光經에 따라 建立되는 佛塔은 宗教의 次元에서 護國護民의 의미를 지녔다고 굳게 믿었을 것이다.

二、印度와 中國의 舍利容器

(1) 印度

印度의 舍利容器는 形狀에서 變化가 많은 것과 같이 材料나 奉納方法도 여러가지다. 佛舍利를 單獨容器에 納入하여 塔內에 安置도 하지만 大部分의 경우 佛舍利를 유리나 水晶 또는 黃金으로 만든 瓶, 壺, 筒狀容器에 直接納入하여, 이것을 가장 속에 들어가는 容器로 하여, 다시 銀, 銅, 鐵, 石, 土器 등의 外護容器로서 三重, 四重 또는 六重으로 保護한다. 즉 작은 容器로부터 점차 큰 容器로 겹치는 方式이다. 二重 容器의 例로는 金銅과 水晶의 가니슈가(Kaniska)大塔(雀離浮圖)(도판 23) 石과 金의 달마라지카B₂塔, 三重 容器로는 石, 銀, 金의 달마라지카(Dharmarājika Stupa) G₂堂, 四重 容器로는 石, 水晶, 銀, 金의 미푸라하스(Mirpur khas), 六重은 一例뿐이지만 石, 銅, 銀, 石, 水晶, 金의 容器로 된 소파라塔 出土의 容器이다. 그리고 金屬製만의 四重 容器로는 銅, 金銅, 銀, 金의 하다(Hada)十塔, 銅, 金銅, 銀, 金의 구시나가라(Kusinagara)涅槃塔이 있지만 大部分의 경우, 다른 材料의 容器와 섞여서 겹치고 容器로는 壺形과 筒形이 많다. 그리고 印度古塔에서의 舍利容器形式은 꼭 一定되어 있지 않으나, 그 중에서도 하나의 類形的 特色을 보이는 것은 피푸라바(piprahwa)塔發見의 舍利容器처럼(도판 22-a, b) 球形 容器의 頂部에 獨特한 꼭지(紐)를 만든 形式이다. 이 類形的 容器는 胴體에서 蓋와 身部로 二分되니 蓋部는 半球形이 된다.

(2) 中國

① 六朝時代의 舍利莊嚴

塔婆가 中國에 傳來되면서 中國式으로 變하는 것과 같이 佛舍利의 奉納法도 中國方式으로 되었다. 正史의 記載로서 가장 신빙성 있는 「南史」扶南傳에 收錄된 梁武帝의 阿育王塔 改建에 關한 記事를 보면, 六朝時代의 東晉·梁에서는 佛舍利가 塔아래에 埋納되었다고 있다. 木塔 塔婆 石塔의 구별없이 塔아래 地下에의 埋納함은 印度와는 判異한 中國의 舍利藏置法인데, 中國人이 佛舍利도 遺骨임으로 舍利奉安을 埋葬으로 생각하였던 데서 나온 것으로 믿어진다. 舍利具는 東晉의 慧達建立의 木塔에선 佛舍利를 넣을 金鍍器을 中核容器로 하여 銀坩, 鐵壺, 石函의 차례로 納入한 四重容器로 하고, 梁武帝 造立의 塔에서 도 金罍·玉罍·七寶塔·石函과 같이 四重容器로 하였다. 이것은 勿論 印度의 古式에 따른 것이지만 最外容器를 石函으로 하고, 여기에 棺에 墓誌銘을 새기는 中國慣習에 따라 石函에 내력을 밝힌 銘記를 새긴다.

② 隋의 仁壽塔 舍利具

文帝(五八一~六〇四)가 全國 百餘州에 세웠던 塔들은 現存하는 것이 없으나, 一九六九年 河北省定縣靜志寺 眞身舍利塔 塔基에서 發見된 仁壽三年銘의 金銅箱(도판 24)은 여러차례의 重修로 內部에 들었던 容器를 잃었으나 六朝時代의 形制가 줄기차게 계승되었음을 알겠다.

③ 唐代의 舍利具는 中核容器를 유리瓶으로 하고, 最外容器가 되는 石函以外는 거의 棺形의 容器로 하는 것이 特徵이다. 그러나 奉納하는 佛舍利는 仁壽舍利塔과 같이 以前에 造立되었던 廢塔을 改修할 때 塔基에서 꺼내어 새로이 容器를 製作하여 再納한 것이 石函에 새긴 銘記로서 확실한 경우가 大部分이다. 그 代表的인 遺品이 涇川大雲寺(甘肅省涇川縣)의 塔基에서 發見된 舍利具(도판 25)인데, 白 유리瓶, 金棺, 銀棺,

金銅箱、石函으로 된 五重容器로서 石函蓋裏에는 大周의 國名과 涇川大雲寺의 舍利인 것과 側面에는 奉納舍利의 由來와 延載元年(六九四)의 年記、施主名을 새겼다. 現在 棺形容器로는 此外에 보스톤美術館의 石製容器(도판 26) 在日本의 銀製容器(도판 27) 등이 알려져 있는데, 中核容器를 잃고 있다. 中國의 舍利器는 各時代를 通하여 거의 外函을 石製로 하는 것이 가장 特徵이라고 하겠다.

三、統一新羅의 舍利具

위에서 源流 印度와 隣接 中國의 舍利具에 대하여 그 대강을 알아 보고 이들 두 흐름을 받아 드려, 우리의 創意性을 充分히 發揮하였던 統一新羅의 舍利具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月城 感恩寺址西三層石塔舍利器(寶物三六六)

感恩寺는 三國을 統一한 新羅 제三〇代 文武王이 倭兵을 물리치고서 死後에도 龍이 되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侵略路인 東海口에 절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工事が 끝나기 전에 崩御하여 그의 아들 神文王二年(六八二)에 준공하였다고 三國遺事卷二 萬波息箇條에 있다.

雙塔中 西塔은 一九六〇年 國立博物館④에 의하여 解體修理되었는데 第三層塔身의 舍利孔에서 舍利藏置가 發見되었다.

舍利具는 네모난 靑銅製舍利龕과 그 속에 靑銅製舍利器가 있었을 뿐이고, 그 以外에는 아무런 莊嚴具도 없었다.

① 靑銅製四角龕(總高約三·一cm 龕身高二·五、二cm)

長方立體形의 상자 모양의 龕身에 낮은 方錐形의 뚜껑을 씌운 龕이다. 이 감의 아래는 부식이 심한데, 各面에 四天王像을 조각하여 붙였으며, 그 左右엔 鬼面의 고리가 있다. 이 얇은 銅板으로 된 四天王像은 그 姿勢나 갑옷등은 完全히 唐代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中國 龍門石窟

의 奉先寺 石佛結의 天王像과 흡사하다 하겠다.

② 靑銅製舍利器(推定復元高約二〇cm) (도판 1)

龕속에 있는데 基壇、身部、寶蓋의 三部分으로 되었으며 밑에 佛壇 같은 基壇이 있으며, 이곳에 眼象을 透刻하고, 그안에 八部衆像을 따로 만들어 安置하였다. 基壇위에는 欄干을 돌렸고, 그 中央에 연꽃과 火炎寶珠를 장식한 覆鉢形의 뚜껑이 있고, 그 속에 舍利瓶을 安置하였으며 그 둘레는 네귀퉁이에 奏樂天人像을 一구씩 따로 만들어 配置하였다. 基壇 四귀에는 各各 기둥을 세우고 寶蓋를 덮었으나 腐蝕이 심하고 寶蓋는 二重이며 寶相華 등의 장식과 垂飾이 있다. 水晶製舍利瓶은 구멍이 밀바닥까지 뚫어져 水晶製 圓盤위에 安置되고 그 뚜껑은 金의 細線과 細粒을 사용하여 심세한 문양을 나타내었다. 이들 舍利具는 四天王像의 얼굴, 갑옷이나 八部衆像의 머리위 冠飾 등으로 이루어 唐과 西域地方文化의 영향을 길게 느끼게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舍利器가 거의 靑銅製이고, 그 樣式은 매우 創意的이다. 舍利瓶도 水晶製와 木造瓶의 二種이 있으며, 정중하게 제작된 舍利莊嚴具는 三國統一의 聖君에 대한 깊은 精誠이 깃든 것으로 보여지며 近來의 寺址發掘로 文武王의 化龍說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듯한 특수한 遺構임이 밝혀졌다.

(2) 慶州 皇福寺址(九黃洞) 三層石塔舍利具(國寶三七 國立博物館所藏)

경주 狼山 東쪽 언덕에서 있는 三層石塔으로 一名 皇福寺塔이라고도 傳한다. 日帝末 一九四二年에 해체수리되었는데, 그때 제二塔身 屋蓋石 上面 中央에서 舍利藏置가 發見되었다. 金銅舍利函속에 사리장엄구가 안치되었는데, 函뚜껑 裏面에는 一八行 三四四字의 銘文이 음각되었으며 天授三年(孝昭王一、六九二)에 神文王이 崩御하시니, 神陸大后와 孝照大王이 三層石塔을 建立하였으나, 그들마저 연이어 돌아가심에 神龍二年(聖德王五、七〇六)에 金上王(今上王)인 성덕왕이 舍利四、無垢淨光

大陀羅尼經一、全金彌陀像一 등을 제 2탑신에 안치하여 그들의冥福을 기원하였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塔은 皇福寺라는 寺名에서도 王室과의 관계가 연상되는 것처럼 金氏王族 일가의 공양탑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金銅舍利外函(가로 二八 cm 세로 二九 cm)(도판 2)

측면에 무구정광경에 따라 九九기의 단층木塔이 새겨져 있다. 즉 제 1段과 제 2단은 四면이 八기씩이고, 제 3단은 九기씩 三면이며, 한편만은 八기이다. ⑤ 綠色유리製 사리병은 破損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石塔에서 처음보는 유리제 사리병이다.

이밖에도 金(金)제 사리합一, 손금여래상二, 金高杯二, 은고배二, 옥천(玉釧)과 玉類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런데 명문에는 佛像一구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立像一, 坐像一의 二구이다. 이들 佛像의 光背는 정교하게 투각되어 두드러져 보인다. 부정윗면의 명문으로 이 사리장엄구들은 年代가 명확하며 탑과의 建立年代考證이나 佛像연구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貴重한 資料이다. 舍利函 四벽에 무구정광경에 따라 小塔 九九基를 새긴 現存 國內 唯一의 例이다.

(3) 慶州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國寶 一二六)

한국 石塔 완속기의 표준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塔은 釋迦如來常住說法의 塔이란데서 一名 釋迦塔이라고도 하여 建塔과정에서 업힌 阿斯達과 阿斯女의 傳說로 無影塔⑥이라고도 한다.

一九六六年 九月 盜掘輩들의 加害로 一〇월에 解體修理하던中 第二層 屋身 上面中央의 方形舍利孔속에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다. ⑦

① 金銅舍利外函(全高一八、五 cm 身幅一八、一~一八、五 cm)(도판 3)

基壇위에 銅板에 紋樣을 투각하고 鍍金하여 만든 寶閣形方形箱子函을 엮었는데 그 지붕은 四注形을 하였다. 기단 各面에는 古式의 眼象이 二

區씩 투각되었고, 外函의 各面은 唐草紋을 투각하였으며, 기둥은 연꽃으로 싸인 구슬을 붙였고, 추녀에는 璽珞이 드리워져 있다. 이 外函속에 銀製卵形二重舍利盒과 金銅長方形舍利盒, 銀製舍利壺, 靑銅製飛天, 銅鏡, 木造供養小塔 一二기 등이 있었다.

② 銀製舍利外盒(全高一〇 八 cm 底徑二、五 cm 胴徑七、五 cm 蓋高四 cm)(도판 4)

外函中央에 마련한 蓮花座위에 안치되었고, 銀地에 鍍金한 卵形을 하였다. 이 外盒 表面엔 연화문, 圓圈文 등으로 무늬를 찍어 장식하였다. 뚜껑에는 蓮꽃으로 싸여 있는 붉은 마노玉을 붙여 꼭지로 삼았고, 그 둘레에는 복판(複瓣)연꽃을 찍었다. 몸에는 魚子文이 있고, 그 밑에는 네곳에 뚜껑 꼭지와 같은 구슬이 있으며, 몸 아랫쪽에는 間地를 魚子文으로 메운 蓮꽃을 우수한 솜씨로 찍었다.

③ 銀製舍利內盒(高九、八 cm 直徑二、八 cm 口徑五、八 cm)(도판 4)

뚜껑이 없으나 外形은 外盒과 같은 卵形인데, 口緣에 圓圈文帶를 둘러고, 그 밑엔 仰蓮모양의 寶相華瓣 八잎이 찍어져 있다.盒안에 綠色유리製舍利瓶이(全高六、四五 cm)있고, 그 안에 舍利 四六알이 들어 있었는데 이 소중한 舍利瓶이 우리 世代에 와서 寺刹側의 不注意로 파손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④ 長方形金銅舍利盒(全高七 cm, 廣六、二八 cm 幅三、三 cm)(도판 5)

앞면中央에 木塔形式의 三層塔과 그 左右에 菩薩像, 兩側面에도 역시 둘레에 윤곽을 하고 仁王像이 一구씩 陰刻되었는데, 彫像은 매우 우수한 솜씨다. 뚜껑 中央에는 寶玉形의 작은 꼭지가 달려 있는데, 이舍利盒안에는 香木製舍利瓶(瓶高五、〇二 cm)이安置되어 있었다.

⑤ 靑銅製飛天(全高四、五 cm 前面高二、四五 cm)

胴體는 U字形으로 가슴 이상은 앞면으로 向하고 下體는 위를 向하고 있으며, 머리에 肉髻가 있고, 빠른 速度로 下降하는 形狀이며, 塔 속에서 飛天이 發見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

⑥ 銅鏡二面

모두 無文銅鏡이며 그중 하나는 約四分의 一만 남은 破品이다. 完品(徑八、一cm 紐高〇、六cm 厚〇、三五cm)은 中央에 꼭지가 있는 單純한 形이다.

⑦ 銀製舍利壺(全高四、二五cm 口徑一、九cm 身高三、一cm 底徑二、〇五cm)

表面에 文樣이 없는 有蓋壺이다. 어깨 部分이 넓고 밑이 좁아져서 두꺼운 굽이 있다. 뚜껑은 높직하고, 큼직한 꼭지가 달리고 꼭지에는 여러 개의 고리를 연결한 긴 쇠사슬이 달렸고, 그 끝에는 心葉形銀板이 있다. 壺안에는 金板으로 鑲 銀製小盒(高〇、五cm 上徑〇、五cm)이 있었고 이 小盒안에는 舍利一알과 香木이 있었으며, 뚜껑을 덮게 되었고 表面에는 문양이 없다.

이밖에 無垢淨光大陀羅尼經(長約六m、字徑四~五mm 紙上下六、五cm)은 楮紙로 된 韓紙에 約五二cm의 길이의 종이를 一三·四枚 이어서 만든 것이다. 經文中엔 唐則天武后字 四자가 들어 있는데 이 자는 대체로 A、D 六九〇~七〇四年에 使用되었으니 釋迦塔 建立年代인 七五一年을 卜限으로 잡아도 그보다 앞서는 時期임이 分明하니 實로 世界最古의 木板印刷文이라 하겠다.

(4) 金陵葛項寺址東西三層石塔舍利具(慶州博物館藏)(도판 6)

東西 二基의 石塔은 八世紀中葉 釋迦塔 이후의 매우 아름다운 塔의 하나로 一九一六年 金陵郡 절터에서 景福宮으로 移建하였다. 이때 東塔은 基壇아래에 二尺五寸의 돌 二개를 쌓고, 다시 그아래 같은 크기의

돌 윗면에 구멍을 파고, 舍利具를 安置하고 있었는데, 靑銅舍利函, 金銅製舍利瓶(高八、三cm 胴徑四、七cm) 紙片, 陶片, 그리고 西塔에서는 鍍金靑銅瓶(高九、〇cm 胴徑四、七cm)、銅盒, 紙片 등이 발견되었다. 두 塔은 新羅石塔의 常例와 달리 금속제사리병을 그것도 基壇 밑에 장치한 것이 특이하며, 이 靑銅瓶^⑧은 石塔속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금속제 병이다. 東塔 상층기단 面石에는 吏讀文이 섞인 銘文 五行 五四字가 새겨져 있어 이 塔이 天寶一七年(景德王 一七、七五八) 建立되었음을 알겠는데, 塔 表面에 銘文 있는 唯一한 新羅塔으로서 學術的으로 重要な 價値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隅柱나 面石에 많은 못구멍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조각장식이 있는 金銅板으로 덮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塔 表面을 화려하게 莊嚴하는 한 예로 보여진다.

(5) 中原塔坪里七層石塔舍利具

韓半島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俗稱 『中央塔』이라고도 한다. 이 塔은 一九一七年 改建할 때 六層 屋身部에서 유리제사리병, 은제사리병(直徑約二寸) 漆盒一、銅鏡二와 基壇部 아래 평면 舍利孔에서 靑銅盒 하나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銅鏡은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어 고려 때 塔의 重修가 있었을 것이 추측된다. 아주 드물게도 탑신부와 기단부의 두 곳에 舍利具를 장치^⑨한 新羅石塔인데, 기단부 밑에서 사리구가 발견된 예는 앞에서 든 葛項寺址東西塔과 두 예 정도이다.

이 地方에는 이 塔을 中央塔이라 부르는 것을 비롯하여 韓半島의 中心이 되는 곳임을 나타내는 地名과 傳說들이 많다. (※1)

(6) 慶州昌林寺址三層石塔舍利具

石塔은 新羅 四六代 文聖王七年(八五五)에 建立되었던 것인데 朝鮮朝 二三代 純祖 二四年(一一二四)甲申 봄에 石工이 塔을 파괴하였을 때 舍利莊嚴具가 다음과 같이 발견된 것을 秋史 金止喜는 記錄하고 있다.^⑩

初層塔身 사리공에서 銅筒속에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銅無垢淨塔願記板一、金銅開元通寶一、銅鏡一、靑黃色유리玉類등이고 이 가운데서 塔誌는 金正喜의 模寫한 『國王慶曆造無垢淨塔願記』인데 雙鉤文으로 되어 있다.

新羅에서 이와 같은 楷書體의 쌍구문의 線刻이 流行된것은 下代인 九世紀中葉부터인것 같다. 이 昌林寺塔銅板誌(大中九、文聖王一七、八五五)外에 仲和三年銘經筒(憲康王九、八八三) 廉居和尚金銅塔誌(會昌四、文聖王六、八四四)가 있는데, 이 昌林寺塔誌는 皇龍寺塔誌와 서로 닮고 있으며, 字體의 刻法뿐만 아니라, 本文이 各一行이고 各行一五字인것도 같다. 昌林寺塔誌가 八五五年(文聖王一七)이고, 皇龍寺塔誌는 八七二年(景文王一二)이니 一七年的 差밖에 안되어 이들 塔誌가 文聖王과 景文王 두 國王의 發願에서 이루어졌음을 考慮할때, 이 두 塔誌가 서로 매우 흡사함에 수공이 같다. 위에서 國王이란 文聖王인데, 新羅에서는 今上王을 그 이름으로 直接부르는 일이 眞興王代부터 下代에 이르러 흔히 보이는 일이다. 이 舍利具를 內藏하였던 石塔은 一九七六年 一二月 재건되었다.

(7) 慶州 皇龍寺九層木塔舍利具

皇龍寺木塔은 古新羅 善德女王때 唐에서 귀국한 慈藏法師의 建議에 따라 三國統一을 기원하여 건립되어(善德王一四、六四五) 新羅國民의 精神의 支柱가 되어오다가 高麗 高宗一六(一二二九)에 蒙古(元)의 侵入으로 불타버린후 재건을 하지 못하였는데, 一九六四年 千餘年寺址에서 보전되어오던 舍利寶가 도굴되었다가 그후 다행히도 대부분은 수습되어 國立博物館에 소장되었다. ⑩

① 金銅舍利外函

心礎石 中央에 마련된 方形二段孔안에 安置되었다. 四장의 壁板은 大小 水心의 破片으로 수습되었는데 下端部가 腐蝕으로 결락되었고, 이들

은 네 귀퉁이에서 서로 連結되었다. 壁판은 各面에 二구씩計 八구의 神將像이 線刻되었는데 武器를 잡았고, 古式인 天衣등의 樣式으로, 제작연대는 內函보다 二세기 앞서는 이 塔의 創建年代인 善德女王代(六三二~六四七)로 보인다. 이 方形상자를 덮기 위한 銅板뚜껑이 확인되었고, 밑판도 작은 破片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 最古最大의 外函이 되겠다.

② 金銅內函(銘文板 가로 二三、五cm 세로 二二、五cm)(도판 7)

塔銘은 안팎 양면에 새긴 金銅板 三장과, 앞면에 二장의 正方形인 金동판과의 五장으로 方函을 이루었다. 門扉 두장은 측면과 上下에서 몇개의 金具로서 연결되었고, 그 중앙 한곳에서 다시 작은 고리로 연결하여 여닫게 할수 있게 하였다. 이 문비(각판 가로 一一、八cm 세로 二二、五cm)안과 가득히 선자된 神將立像의 冠飾과 甲衣의 樣式등으로 景文王(八六一~八七五)代인 九世紀 후반의 작품으로 보인다. 銘文은 合계 七四行 九〇五字가 判讀되었다.

이 塔의 처음건립과 重修事實을 傳하는 記銘과 舍利具의 後納을 위하여 이 金銅內函이 景文王代에 마련되었다. 단순한 銘文만을 기록한다면 廉居和尚塔의 金銅塔誌(八四四)나 昌林寺塔誌(八五五)와 같이 銅板을 一張 따로 만들었을것이나 新舊사리구의 새로운 奉安을 위해 各板을 연결하여 方函을 이루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塔誌中에서 가장 길고 중요하며, 우리 古文獻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보충하는 資料로서의 가치도 매우 클뿐아니라 이후 木塔의 舍利藏置의 모범이 되었다.

위의 大形 內外函을 除外한 以下에 드는 大小의 舍利具는 皇龍寺塔의 것인지 斷定할수는 없는 것들이라고 調査者는 發表하였다.

③ 銀製舍利塔(高三、五cm 徑九、二cm)

臺座와 屋蓋가 각각 하나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塔身部는 없 어졌다. 臺座는 八稜을 하고, 眼象이 透刻되었으 며 그 위에 欄干이 돌

려졌다. 屋蓋頂上엔 蓮봉오리 모양의 相輪이 있고, 稜마다 귀꽃이 있으며 구멍엔 원래 瓔珞이 있었던 것 같고, 年代는 景文王 重修 때 것으로 보여진다.

④ 金銅八角舍利塔(도판 8)

八角인 塔身부와 屋蓋는 각 추고 있으나 相輪部를 잃고 있다. (高二, 二cm 直徑 九, 七cm)

臺座는 周緣의 眼象片과 얇은 臺板片이 남았고, 塔身部(高八, 五cm)엔 門扉가 따로 달려 있어 여닫게 되어 있다. 屋蓋에는 귀꽃이 두 곳에 남아 있으며 頂部에 蓮華文이 둘러졌는데 앞의 銀製舍利塔보다 年代가 강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銀製小圓板 三點

A、周緣에 連珠文을 돌렸고 中央에 花枝 한 개를 두고, 그 左右에 雙鳥가 對立하였으며 間地엔 打點文으로 하였다.

B、周緣은 같으나 徑二, 五cm 四입의 忍冬文이 둘러졌고 扶餘出土의 箱子塚의 忍冬문양과 매우 유사하다.

C、鍍金이 鮮明하며 渦文을 透刻하였는데 用途는 알 수 없다.

⑥ 金盒(도판 9)

아래 위가 둥근 圓盒(高一〇, 八cm 徑一一cm)은 中央에서 身部와 蓋部가 分離되었다. 年代는 三國末로 추정된다.

⑦ 銀盒(도판 9)

金盒보다 더 큰데, 形式은 거의 같다. 원래는 이 두盒이 겹쳐져 그 안에 舍利具를 藏置하였던 듯하다.

⑧ 青銅小圓筒(全高 四, 二cm 徑二cm)(도판 10~2)

연꽃 꼭지가 달린 小圓筒으로 身과 蓋와의 內面엔 銀板이 끼어 있고, 外面엔 唐草文이 음각되었다.

⑨ 青銅方形小函(全高 六, 二cm)(도판 10~3)

身, 蓋가 두꺼운 늑으로 分離되지 않으며 下端의 臺部는 四귀퉁이에 球形의 발이 달려 있다. 뚜껑은 頂上에 蓮봉꼭지가 달려 있고, 對角으로 四等分되었으며, 花文이 各面에 새겨졌고, 身部의 木紐는 分明치 않다.

⑩ 銀製圓盒(高 五cm, 徑 七, 三cm)(도판 11)

뚜껑 윗면에는 八瓣蓮花紋이 細刻되었는데 子房은 없다. 그 밑으로 唐草文帶가 둘러졌고 身部에도 蓋部와 逆順으로 木紐가 둘러졌으며, 그 속엔 舍利具가 들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黃壽永: 新羅皇龍寺九層木塔 剎柱本記와 舍利具, 東洋學三參照한)

다시 皇龍寺木塔址에 대하여 一九七八年 二次的인 精密調査가 있었는데, 이때 心礎周圍와 그 밑에서 出土된 遺物中에서 金屬工藝品은 다음과 같다. ⑫

A、心礎 周邊出土物

① 銅鏡: 中央의 半球形 꼭지를 中心으로 圓帶가 突出되었고, 꼭지에는 青銅環이 달려 있다. 鏡의 文樣은 未詳이며 直徑은 九, 一cm 이다.

② 青銅製盒 三點: 青銅製板의 球形容器로 大破되었다. 口徑 一〇cm

③ 其他 葉錢, 針筒形具, 鉤形具 등 青銅具片이 多數

B、心礎 밑 出土遺物

① 青銅鏡 一點: 꼭지를 中心으로 方格規矩神獸文이 陽刻되고 周緣에 銘文이 있다. 直徑 一六, 五cm

② 青銅壺形容器 一點: 銅板 二장을 붙여 목이 짧은 작은 항아리의 容器로 器表에 많은 瓔珞이 달려 있는데 儀器의 一種으로 보인다. 高一三cm, 口徑 八cm

③ 青銅製三重鏡 一組：大、中、小의 세개의 圓底半球形鏡 高五~六 cm 口徑一、二、五 cm

④ 青銅製盒 二點：낮은 帶形의 굽 달린 半球形胴體에 寶珠形꼭지가 달린 뚜껑이 있다. 高 一三 cm

⑤ 青銅製鏡 一三點：圓底 半球形器身에 直立口緣이 달렸다. 高三、五~七 cm

⑥ 青銅製釧 一點：斷面 矩形인 圓形의 팔찌로서 表面에는 連珠文이 있다. 直徑 七、五 cm

⑦ 其他：철도끼 一、철제낫 一、青銅鎧具附帶具 一組, 청동 작은 방울 一, 철가위 二, 청동제 장신구 및 철편 다수

이塔의 第二次發掘調査者는 그發表에서 「：이러한 遺物들이 塔心礎周邊과 그 밑에서만 發見되고 다른 礎石이나 基壇內에서 發見되지 않았다.」고 報告하고 있다.

筆者는 여기서 中國六朝時代의 木塔舍利藏置法을 들고자한다. 즉

塔을 세울때 心柱가 설 位置에 約 三 m 깊이의 구멍을 파고, 그 밑에 여러 가지로 莊嚴한 舍利石函을 安置한다. 莊嚴의 손서로는 佛舍利를 먼저 瑠璃瓶같은데에 넣고, 그위에 金函, 銀函, 青銅函 그리고 마감인 石函의 차례로하고, 供養品인 金銀 寶玉類가 함께 納入된다. ⑬

이러한 中國의 藏置法은 勿論 印度의 古代에서 舍利를 地下에 큰 板石을 놓고, 그 밑에 安置도 하는 방식에 따랐을 것이며, 이것이 韓半島의 三國時代 百濟에 傳하여져, 扶餘軍守里寺址의 木塔址 地下五、五尺의 心礎石(舍利孔은 마련되지 않음)에서 金銅菩薩等이 發見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이 다시 日本으로 건너가 日本初期寺院인 四天王寺, 法隆寺 木塔의 地下에 舍利를 藏置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事實이 이 皇龍寺木塔에서도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塔의 장차 방법은 朝鮮朝 壬辰倭亂後에 再建된 報恩 法住寺五層木塔(捌相殿)에 더 계승되었던 것이다. ⑭

이와 같이 印度에 根源을 둔 舍利藏置法이 東洋諸國으로 流轉되는 과

정을 볼때 서로의 親近感을 느끼는 同時에 佛敎美術의 끈질긴 傳統에 堅固하지 않을수 없다. (金正基·舍利莊嚴의 新例 考美 一三八、一三九 參 照함)

(8) 仲和三年銘金銅圓套(長一七 cm, 徑四、二 cm, 字經〇、八 cm)

一九六四年 一二月 一七日 皇龍寺木塔址 心礎石의 方形舍利孔에서 盜掘者들이 위의 一括遺物과 함께 탈취하였다고 傳하는 것인데, 鍍金한 銅板으로 속이 빈 圓套을 만들었으나 아래 위가 부식하여 剝락되었다. 銘文이 雙鉤文으로 八줄 음각되었다. 이 銘文에 따르면 石塔에 납입하였던 事實과 그 年代가 皇龍寺塔誌의 景文王 一二年 壬辰(八七二) 보다도 一一年 늦은 仲和三年 新羅憲康王九年(八八三)에 해당함으로 이 圓套이 皇龍寺木塔 舍利孔안에 함께 있었다고는 볼수 없겠다. ⑮

(9) 漆谷 松林寺五層塔舍利具(寶物二二五)

八公山 서쪽 기슭에 자리잡은 松林寺는 古刹이기는 하나 事蹟에 대한 傳來가 없다. 新羅時代 建立으로 보이는 塔이 傳하나 跡이 심하고 그 규모로 보아 後代의 改修가 있었던 것이 짐작된다. 이塔에 관해서는 東國輿地勝覽에도 記錄이 없고, 梵宇攷(正祖 때 편찬함)에 詳막한 記事가 보일뿐이다. 우리나라 몇 基 안되는 羅代塔塔은 거의 安東에 集中되어 있는데, 이밖의 땅에서는 오직 이塔이 있을뿐이다.

一九五九년에 塔은 解體修理되었는데 第二層塔身의 돌거북모양의 石函속에 安置된 舍利莊嚴具가 發見되었다. ⑯

。殿閣形 金銅舍利器(高 一四 cm 基壇一邊길이 一一、七 cm) (도판 12) 基壇위에 네기둥을 세우고 뚜껑을 덮은 形式이다. 밑에는 金板을 오려서 만든 伏蓮을 못으로 固定시키고, 그 위에 난간을 사방에 돌렸는데 각면은 童子柱를 세개씩 세웠으며, 透刻문양으로 장식하였다. 兩쪽 네 귀에는 기둥을 세우고서 뚜껑을 받치게 하였다. 그 중간에는 金板을 오

려만든 蓮花臺를 마련하고 그위에 綠色유리컵 모양을 없었는데, 이와 같은 유리製容器는 매우 稀貴하며, 이속에 또한 綠色유리製舍利瓶이安置되었고, 유리 마개를 하고있다. 寶蓋는 二重인데 네모서리에 垂飾이늘어졌고, 추녀에는 영락이 달려있다. 이러한 寶蓋形式은 感恩寺舍利器에서 그脈을 이었다고 하겠다. 이 寶蓋위는 투각분양, 點線文 등으로 장식하고 四면에는 연꽃잎 하나씩을 오려붙였다. 이 외에 銀製鍍金樹枝形裝飾具, 銀製小環 등이 발견되었다. 이들中 수지형장식구는 中心출거리에서 대칭으로 나무가지 모양으로 뻗었고, 끝이 모두 寶珠이며 約二〇〇개의 영락이 달려있다. 밑뿌리는 뾰족해서 어떤곳에 꽂았던것 같으나 어디에 쓰인것인지 알수 없고, 이와같은 예는 오직 이곳에서만 볼뿐이다.

이塔의 金屬製 相輪部는 鐵과 靑銅을 主材料로 하였고, 全面에 鍍金을 한 全長 一五尺인 우리나라 塔塔의 現存 唯一의 新羅作品이다. 貴重한 金銅製 水烟도 갖추고 있었으나 解體修理後 그 모습을 볼수 없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10) 善山 桃李 浮屠金銅舍利器(國寶二〇八)(도판 13)

절은 新羅에의 佛敎初傳地로 有名한 善山郡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의 桃李寺가 廢寺된 時期에 대하여는 알수 없다. 現存 桃李寺 境內에는 石造物로 華嚴石塔, 世尊舍利塔, 阿度和尙事蹟碑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서 朝鮮朝에 盛行한 石鍾形의 浮屠인 世尊舍利塔을 一九七七年 移安中 뜻밖에 그 底部舍利孔에서 新羅時代의 金銅舍利具가 發見되었다. ⑩

이 사리구는 六角圓堂浮屠形인데, 밑에 六角기단을 마련하고 各面은 古式의 眼象을 一區씩 투각하였다. 사리구의 身部各面에는 보살상 二구와 사천왕상 四구가 조각되었으나, 鍍金後에 새긴듯하다. 옥개엔 기와 끝이 없고, 마루(隅棟)만 있으며, 그끝에 三葉形 귀꽃이 반전을 보이며 솟았다. 귀꽃 一개가 절실되었는데, 고리가 있고, 낙수면 중간에도 각각 달려있다. 이곳에 영락이라도 달려던것이 아닌지 추측이 된다. 옥개

정상에는 單瓣 六잎의 伏蓮을 조식하고, 탑정부에 相輪이 있었던듯하나 缺失되었다. 도금색이 찬란하고 제작수법등으로 보아 八세기의 제작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부도형사리구는 身部가 八角形에 屋蓋엔 기와끝이 있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六각형이고 기와끝도 없음은 異例에 속한다. 韓國塔婆에서 六角形의 例로는 平壤元廣寺址六角七層石塔, 金堤金山寺多層石塔(靑石塔), 그리고 舍利具로서는 楊州 水鍾寺浮屠內發見 銀鍍鍍金 六角龕 등의 高麗時代作品인데, 新羅作에서 六角形 舍利具의 發見됨은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이 舍利具는 國寶로 指定되었고 現在 東國大學校에 所藏되어있다.

(11) 全北 南原附近塔發見舍利器(高一四,二cm 國立博物館所藏)(도판 14)

舍利器는 南原附近에서 發見되었다고 傳할뿐 內藏하고 있던 塔名은 알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舍利器와는 다른 意匠이 더해졌다.

殿閣形舍利外函 밑에는 특이하게도 佛像의 蓮花座같은 받침이 마련되었는데 八角으로 되었고 아래 위에 두단의 古式單瓣蓮花가 양각되었다. 연화좌의 上端은 圓套形받침이 있다. 이 위에 仰蓮이 있어 사리함을 받치고 바닥 둘레에는 二重으로 꽃술같은 것이 있다. 仰蓮에서는 四方으로 줄기가 뻗어 연꽃 한송이씩 있고 그 위에 四天王像으로 보이는 神將一구씩이 안치되었다. 方形의 舍利外函 四面에는 蓮花臺위에 가부좌(跏趺坐)한 如來像을 中心으로 그 둘레에 석가탑사리와함과 같은 手法의 唐草文이 투각되었고 기둥에는 연주문(聯珠文)을 안에서 찍어내었다. 두 평은 사모집 형식이고 4방에 三개씩의 仰蓮形이 남아있는데 아마도 구슬을 박았던듯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없다. 정상에는 큰 仰蓮이 붙어있고 그 중심에 꽃혀있는 檨柱에는 二重의 寶蓋가 얹혀있다.

곳곳에 푸른 녹이 나 있지만, 아직도 연화대에는 진한 金빛이 남아있다. 이 외함은 거의 손상을 입지않고 발견되었으며, 造形이 정교함과 창

의적, 의장이 풍부하여 新羅舍利函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좋은 예라 하겠다.

(12) 傳興法寺廉居和尚塔誌(세로九寸五分, 가로五寸五分 國立博物館所藏)

浮屠는 日政 때 江原道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에서 서울 塔洞公園으로 옮겨졌다가, 後에 다시 景福宮으로 移建하였다. 寺址에서 떠날 때 楷書體로 六行 四八字인 銅塔誌板이 발견되었다. 이 塔誌板의 銘文에 따르면 會昌四年(新羅文聖王五, 八四四)에 廉居和尚의 入寂을 전하고 있다. 世俗人의 墓誌와 같은 이 塔誌는 비록 和尚 개인에 관한 일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으로서 이 浮屠가 우리나라 八角形圓堂浮屠中 現存 最古의 것임을 알게된 소중한 資料이다. 原所在地가 原城郡이라고는 하지만, 그後 여러 차례의 現地답사 연구결과 所在地가 確實치 않음을 알게되었다. 廉居和尚은 新羅末의 僧이지만 그의 事蹟에 대하여는 잘 알수 없다. 다만 新羅 憲康王 一〇年(八八四)에 세운 全南 寶林寺 普照禪師塔碑文에 『……付法於廉居禪師……』라 보일뿐인데, 道儀大師의 弟子이다.

(13) 永泰二年銘塔舍利壺(高五cm, 全高五, 五cm) (도판 15)

一九六六年 京畿道 安城郡 二竹面 彌勒堂의 石塔에서 발견되었다고 傳할뿐이다.¹⁸⁾

蠟石製石(一邊約 一一cm의 거의 正方形)의 上面 中央에 깊이 二, 四cm, 직경 二, 五cm의 圓孔을 파고, 이곳에 全面 푸른 녹이 있는 銅製 小壺가 안치되었다. 이 圓壺의 表面은 無文이고 小品이며, 마개는 같은 靑銅製의 胡蘆瓶形(高 二cm)을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 舍利壺의 밑에 굽(直徑 二, 三cm)이 있고, 口徑에 比하여 胴徑이 大 三, 五cm이며, 肩部에는 線帶가 한줄 있다. 이 壺의 밑면이 浸蝕되어 구멍이 뚫어진 것은 오랜 歲月이 흐른 탓이겠는데, 그 안에서 舍利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小壺의 몸이 작기는 하나 球形에 가깝다.

新羅의 舍利容器로는 유리製舍利瓶이 그 主流를 이루고, 金屬製瓶으로는 葛項寺址兩塔의 靑銅製瓶과 塔坪里 中央塔의 銀製舍利瓶이¹⁹⁾ 발견된 예가 있기는하나, 이 壺形容器는 稀例이고 장치방식 또한 특이하다. 舍利瓶은 單獨으로 安置되지 않고 이를 外護하는 容器(外函)가 마련되는 것이 적시인데, 이 塔에서는 塔誌石 自體에 구멍을 파고 장치하였으니 略式으로 보여진다. 銘文은 誌石의 側面과 底面에 새겨져 있고, 各面의 書體도 字徑이 다른데, 銘文의 永泰는 唐의 代宗代 年號로 그 二年은 新羅 惠恭王二年(七六六)에 해당된다. 新羅에 있어서 많은 塔의 建立과 重修가 國家나 王室의 發願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이 塔에서는 鶯樓寺塔의 石壺에서와 같이 民間人(僧侶 三人)의 힘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어, 신라 불교 신앙의 변천과정의 一面을 보여주는 좋은 資料라 하겠다.

이 舍利壺는 現在 東國大學校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14) 聞慶 鳳樓里石塔舍利具(現, 慶州博物館藏) (도판 16)

舍利具는 銀製打出的 瓶形에 底板을 붙인 銀製瓶形舍利容器(全高 三, 一cm)가 銅鑄製鍍金の 八角圓堂形容器안에 安置되는 二重容器로 되어 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菩薩立像이 있으나 容器안에서의 納置된 상황은 알수 없다.

金銅八角舍利容器(全高三, 一cm)

身部以下는 하나로 되고, 기단 八面에는 眼象이 마련되었다. 底板에 구멍 하나를 뚫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물을 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뚜껑에는 寶珠形의 목지가 있다.

鳳樓里石塔內發見 遺物은 日政 때 西脇健治의 기증으로 日本에 건너가 있었으나, 一九六六年 五月 二八日 韓日文化財에 關한 協定에 의하여 서울에서 引受하였다.

(15) 銅製八角舍利具(全高一〇、四cm 慶州博物館)(도판 17)

八角浮屠形舍利具로서 銅製이며 基壇部、身部、屋蓋部の 三部分으로 되어있다. 기단 各面에는 眼象이 있고, 二段의 받침위에 身部가 놓여졌다. 屋蓋頂上에는 八角의 露盤을 마련하고 표주박 모양의 寶珠를 엮었는데 屋蓋와 하나로 만들어졌다.

身部안에는 綠色유리製 舍利瓶이 안치되었으며, 이 瓶과 함께 金가루, 종이쪽, 삼실등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한다.

(16) 傳 法光寺址三層石塔 青銅舍利壺(高七、五cm 口徑四、一一cm)(도판 18)

全面에 푸른 녹이 있고, 胴體에 파열된 금이 보인다. 뚜껑이 있으며 처음에는 鍍金하였던 듯하나, 거의 마멸되어 靑銅色을 하고있다. 塔誌와 함께 發見되었다고하나 확실치 않으며, 年代는 같이 수습된 石壺보다 하강한다. 이와같은 形態의 항아리 모양의 容器는 上代 日本 舍利容器의 主流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만 新羅에서는 이러한 例가 적은편이고, 奉化西洞里東塔 발견의 舍利容器(滑石製)가 있을 정도이니 貴한 舍利器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 遺品과 法光寺와의 관계는 앞으로의 開塔重修를 기다려야만 될 것이다.

(17) 光州東五層石塔 舍利具

一九五五年 解體修理, 一九六二年 再補修하였다. 第四層屋蓋石에서 舍利藏置가 발견되었는데, 金屬器로서는 銅盒이 있었는데 現在 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18) 在日本新羅 金屬製舍利具

○ 小倉武之助舊藏 舍利容器(도판 19)²⁰⁾

銀製杯形容器, 銀製塔形盒, 金銅圓形盒을 한 셋트로하는 小에서 大의 차례로 겹쳐놓는 式의 舍利容器들로 慶州南山的 石塔발견이라고만 傳한다. 舍利器를 몇점으로 겹치는 것은 佛國寺釋迦塔에서 그例를 본바있거니와 印度古塔에서의 藏置方法的 傳統을 이은 것이라 하겠다. 圓形盒과 塔形盒의 二基는 文樣을 打出하고 線刻으로 나타내었다.

① 銀製杯形容器·口緣部에 뚜껑을 덮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 이것 이 처음부터의 完形일것 같다. 이러한 술잔 모양의 容器에 舍利瓶을 安置하는 예로는 松林寺塔塔발견의 舍利容器가 있으며, 또 釋迦塔의 內部舍利容器가 同類임에서 미루어 이것이 新羅時代中葉 舍利奉安의 한 方式이라고 할수 있겠다. 특히 釋迦塔의 杯形容器의 口緣部가 連珠文이나 打出에 線刻과 魚子文을 더하여 顔面을 장식한 화려한 蓮花文 등과 그 手法이 매우 흡사하여, 이들이 거의 同代의 作인것은 分明하다. 內部엔 으레히 속에 들어가는 舍利容器가 安置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② 銀製塔形盒(도판 21)·魚子文 바탕에 寶塔, 樂器, 花枝文 등을 打出하고 線刻의 手法으로 장식하였다. 이 寶塔의 양옆에 보이는 花枝文도 釋迦塔舍利具中的 圓形碗形盒에서 보이는 花枝文과 유사하며, 뚜껑上 部에, 한 材料로된 相輪形이 있다.

③ 金銅圓形盒(도판 20)·鍍金한 銅製이며 顔面에는 九九基의 三層塔을 線刻으로 돌렸다. 外函에 塔을 陰刻한 例로서는 기왕에 皇福寺塔의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새기는 것은 塔안에多數의 小塔을 安置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구정광경이 說하는 小塔供養의 功德언기를 기원하기 때문이다. 가장 안에 들어갈 舍利容器를 잃고 있지만 合한다면 四重容器의 形式이다.

이들은 현재 東京國立博物館에 寄贈되어 所藏되고있다.

舍利外函에 小塔을 陰刻한 例를 海外로 流出된 本品에서 또 하나 알게

되어 多幸스럽다. 그러나 皇福寺塔의 경우 外函의 平面이 四角形이고 單層塔을 음각한데 미하여 在日品에서는 三層塔이 새겨졌고, 容器도 盒인점이 다르다.

在日 舍利具中에는 新羅以後것도 多數있으나 다른 기회에 言及하기로 한다. ②

四、結 論

위에서 살핀것을 그 特徵만을 要約하여 結論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여러 佛敎流轉國에서 舍利莊嚴具의 材料가 多樣하고 容器의 種類도 多彩롭고 質에서 優秀한 우리나라 舍利具中 으뜸가는 金屬製舍利函을 그 形態에 따라 類型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箱子形
 - └─, 처음부터 뚜껑과 상자로 된 完形(皇福寺塔)
 - └─, 組立하여 상자를 이루는형(皇龍寺木塔)
- ② 殿閣形
 - └─, 基臺, 身部, 屋蓋를 갖추고 平面이 四角形(感恩寺, 釋迦塔, 松林寺塔)
 - └─, 위와같은 形態에 臺座가 달린形(南原附近塔)
- ③ 八角圓堂浮屠形 — 塔身이 八·六角浮屠形(桃李寺六角舍利器)

가장 創意的인것이 전각형사리함이니 佛舍利信仰의 高調로 더욱 정중히 舍利를 奉安하려는 精誠의 發露인 것이다. 또 무구정광경에 따른 供養小塔 九九基를 塔안에 納入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만은 그數가 잘 지켜 奉化西洞里東塔과 桐華寺 金堂庵西塔의 例를 들수 있겠다. 釋迦塔에서는 木製인 탓으로 腐蝕한것도 있었으나 小木塔 一二基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舍利函에 小塔을 새길경우 在日本 毛彫三層塔盒과 같이 塔의

層數가 單層塔에서 三層塔으로 變換것도 있고, 또 釋迦塔金屬箱形盒에 (도판 5) 三層塔 一基를, 그리고 在日塔形盒(도판 21)에서도 一基를 새긴것이 나타나 이런점으로 미루어, 新羅下代에 이르러 供養小塔의 納入되는 數가 減少되는 경향이 있는것 같다.

○ 新羅初期石塔에서는 金屬製舍利具가 많이 使用되다가 下代에 이르던(특히 咸通年間, 八六〇~八七三에 해당되는 時期) 石製壺(鶻棲寺塔)등이 나타나고 舍利瓶도 金屬製瓶이 자취를 감추고 유리製瓶이 主流를 이루게된다. (皇福寺, 釋迦塔)

○ 新羅의 舍利莊嚴具가 材料나 質에서 高貴品인것은 新羅佛敎가 護國佛敎이어서 國家나 王族의 發願으로 이루어진것이 많아, 財力과 優秀한 技術이 動員되기 쉬웠을 것이다.

○ 新羅의 塔誌에는 한때 金銅板에 雙鉤文이 적지않게 錫여지기도 하였다. (皇龍寺, 昌林寺塔誌등)

○ 皇龍寺木塔의 心礎石아래에 舍利莊嚴具가 藏置된것은 中國六朝時代以來의 傳統이 이어졌고, 釋迦塔의 舍利容器가 몇점으로 걸친속에 舍利瓶을 安置한것은 印度古式의 傳承으로 보겠으나, 新羅에서 두 系統의 要素가 內包되어있음을 알수있다.

○ 浮屠形舍利器中에서 桃李寺浮屠의 六角形舍利器는 六角입이 異例的이며, 그系脈을 밝히는 努力이 있어야 되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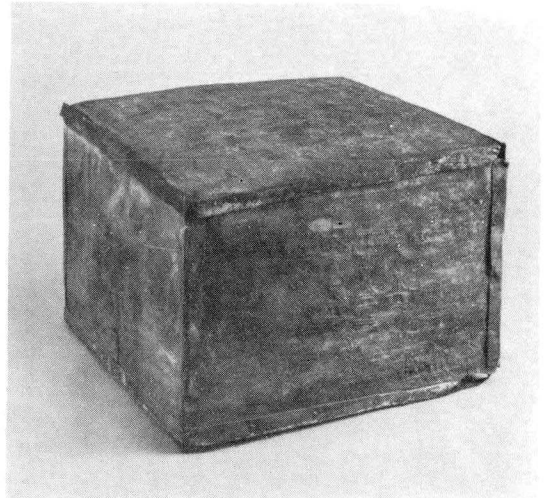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舍利莊嚴具가 金剛山을 限界線으로 하여 그 北에서는 發見되지 않으며, 이 名山에 佛敎文化財가 集中的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은 歷代王朝와의 因緣을 考慮해야 될것이다. (※2)

○ 舍利莊嚴具의 質과 內容은 施納者의 身分과 時代에 따라 差異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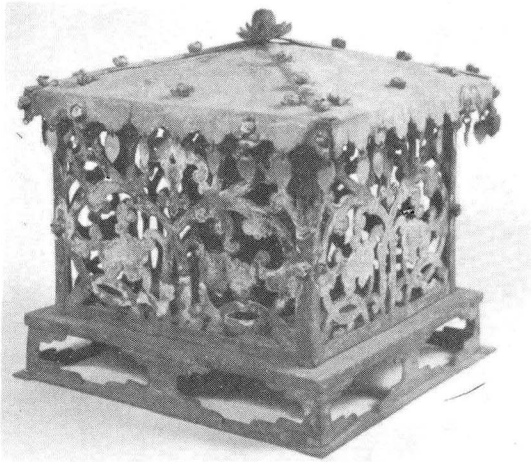
以上으로 간단히 統一新羅時代의 舍利莊嚴具中 金屬製만을 考察했으나, 다른 材料의 舍利具에도 優秀한 作品이 많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늘날 三國中 高句麗는 現存 遺物이 없고, 百濟 또한 거의 없어, 日本의



도판 1. 感恩寺址 西三層石塔 靑銅製 舍利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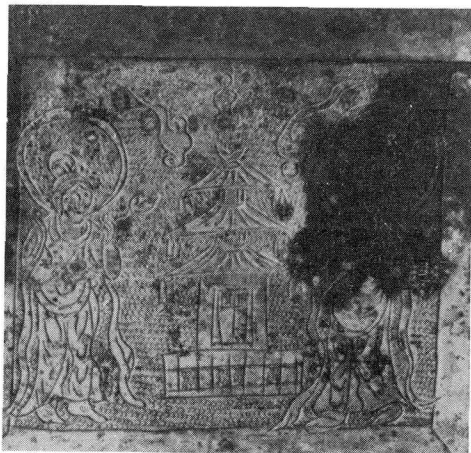
도판 2. 慶州 皇福寺址 三層石塔 金銅舍利外函



도판 3. 釋迦塔 金銅舍利外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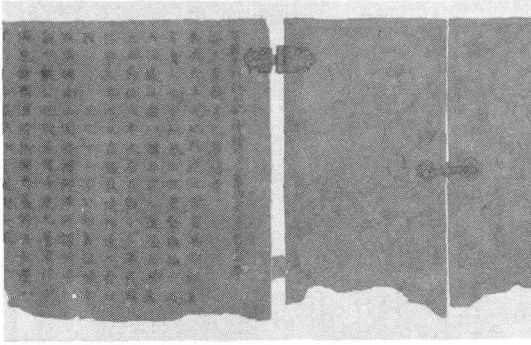
도판 4. 銀製舍利外盒 및 內盒(釋迦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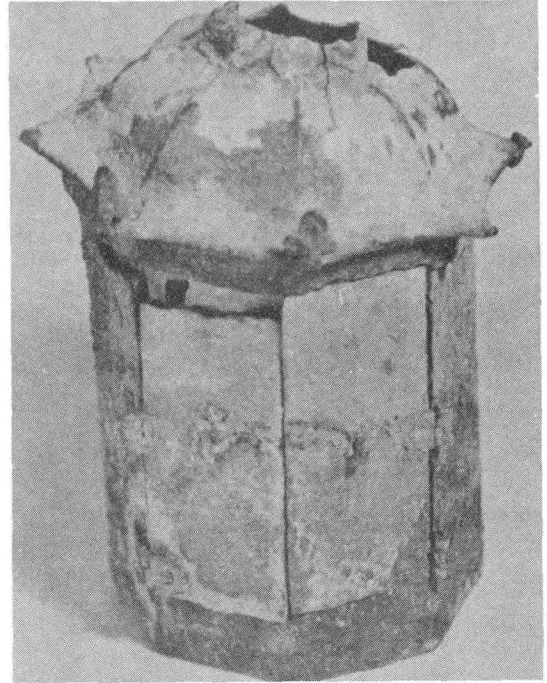
도판 5. 석가탑 장방형합부분(옆면에 새긴 3층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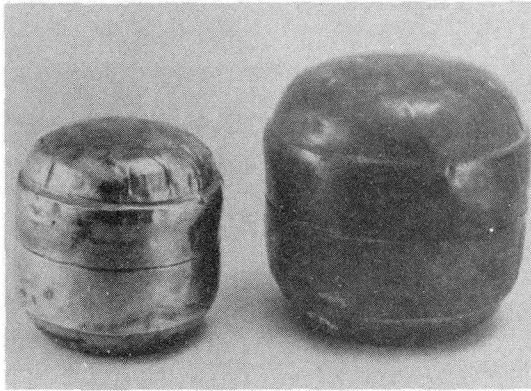
도판 6. 葛項寺址 東西三層石塔舍利具(現 慶州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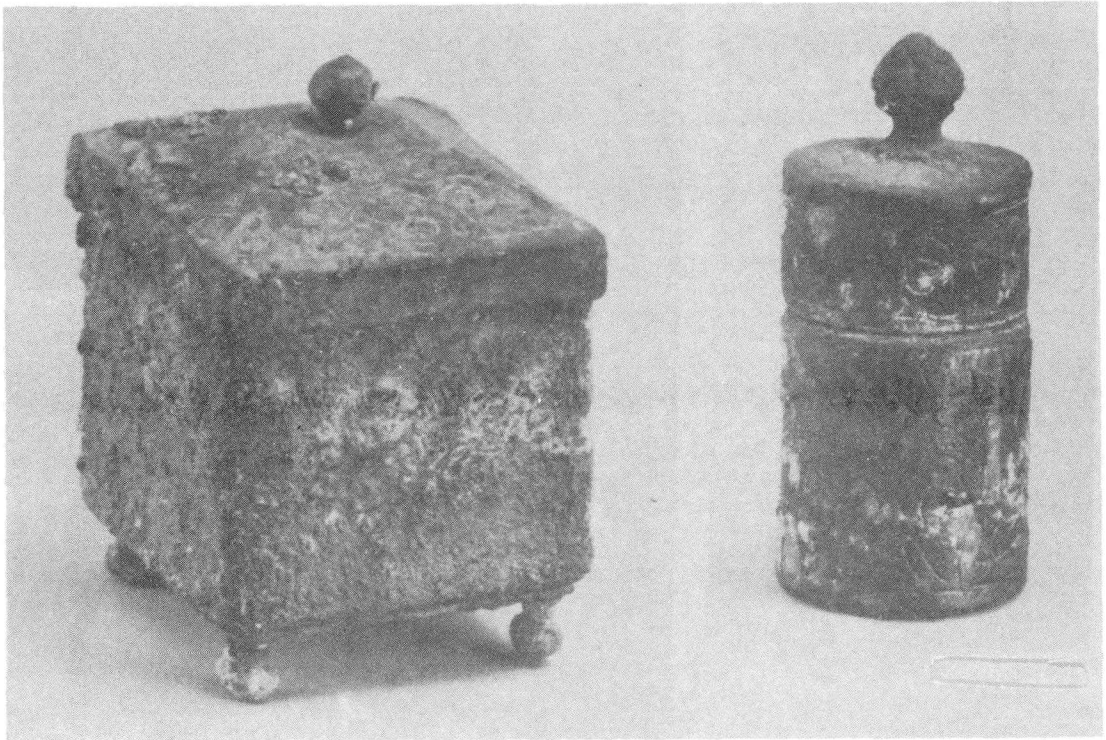
도판 7. 皇龍寺木塔 金銅內函門扉 및 銘文(모사)



도판 8. 皇龍寺木塔 金銅八角舍利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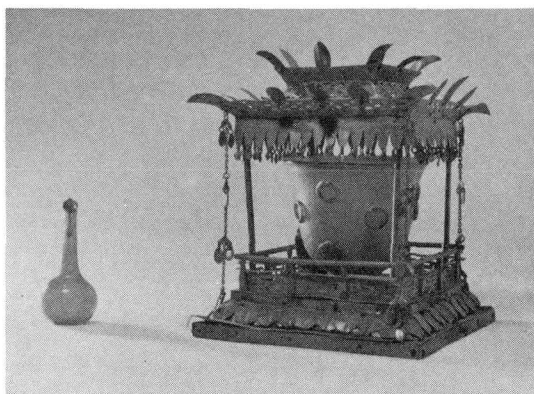
도판 9. 皇龍寺木塔 金盒과 銀盒



도판 10. 皇龍寺 木塔 青銅小圓筒과 青銅方形小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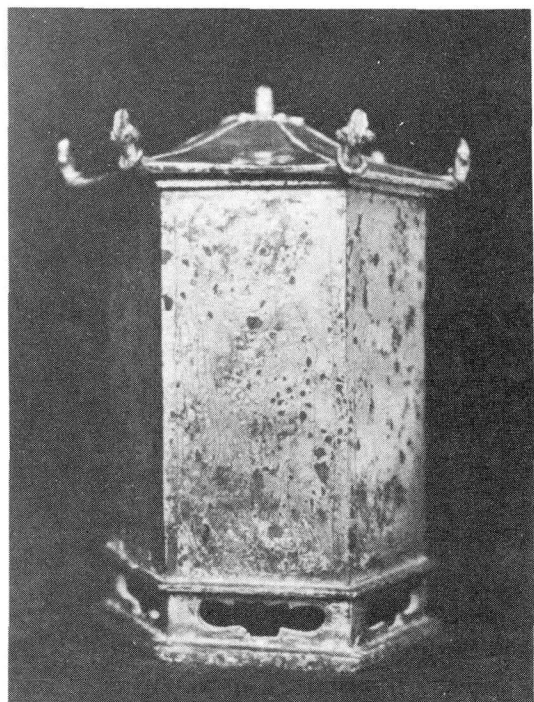
도판11. 皇龍寺塔 銀製內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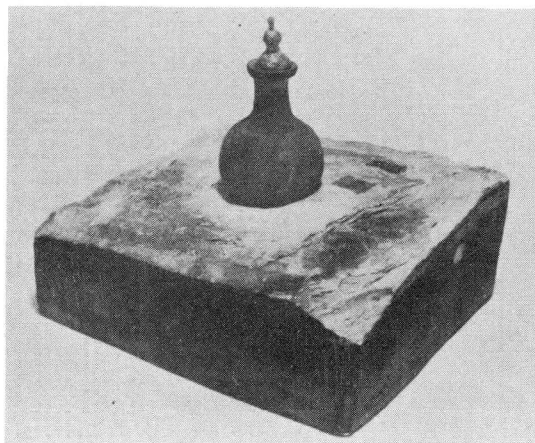
도판12. 松林寺 五層博塔 舍利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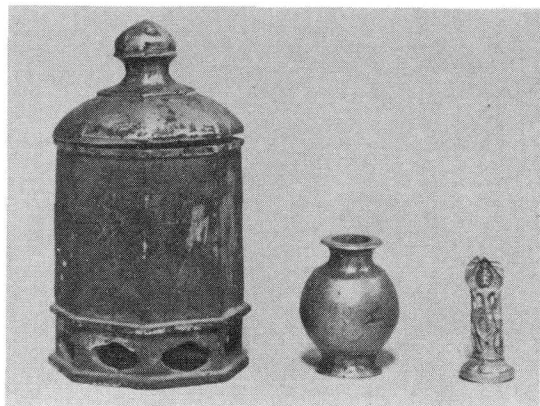
도판14. 南原 附近塔 發見 舍利器



도판13. 桃李寺浮屠 金銅舍利器



도판15. 永泰 2年銘 舍利壺(東國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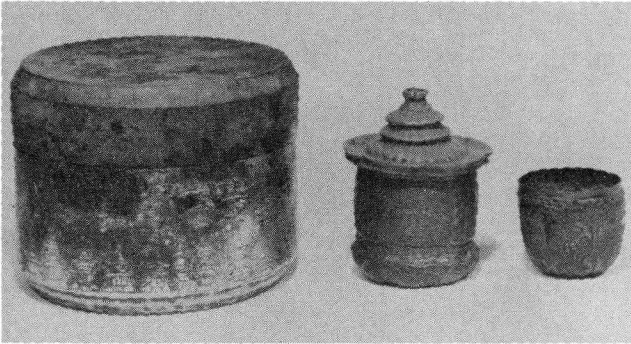
도판16. 聞慶 鳳棲里石塔舍利具



도판17. 銅製八角舍利具 (慶州博物館藏)



도판18. 傳 法光寺塔 銅製舍利壺 (慶州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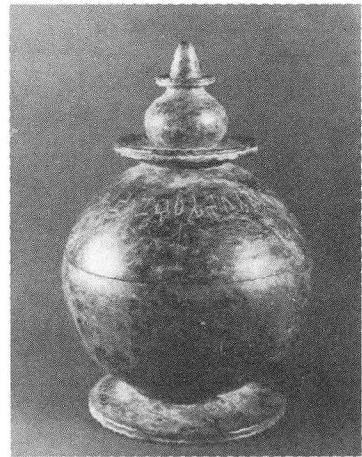
도판19. 在日 小倉旧藏舍利器一式 (現 日本國立博物館)
a. 金銅圓形盒, b. 銀製塔形盒 c. 銀製杯形容器



도판20. 小倉旧藏 金銅圓形盒 (도판 19中的 a)



도판21. 小倉旧藏 舍利器一式 (도판19中的 b)
銀製塔形盒部分 (塔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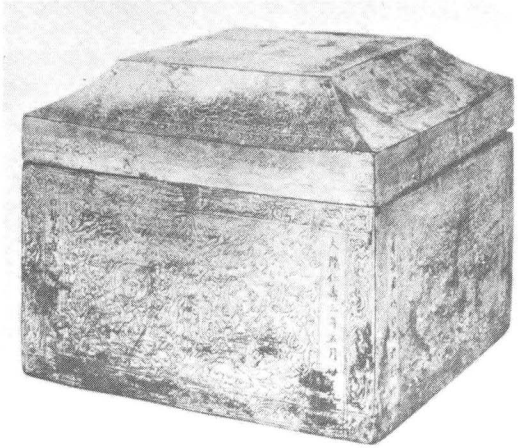
도판22-a 피폴라바 (piprahwā) 塔
發見舍利容器 (印度갈기타 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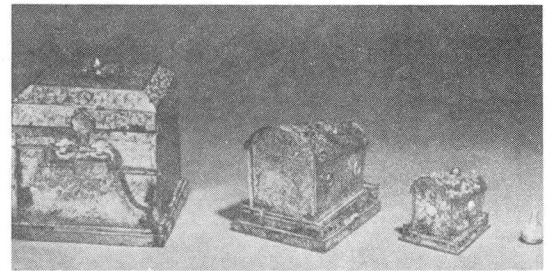
도판22 피푸라바(piprahwa)塔 發見 舍利容器 中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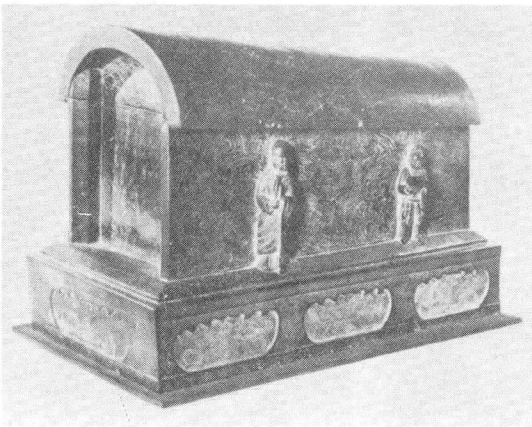
도판23. 가니슈가(kaniska)大塔發見 舍利容器 (파키스탄 페샤왈 博物館)



도판24. 河北省定縣靜志寺 眞身舍利塔基發見 金銅箱



도판25. 甘肅省 涇川縣 大雲寺址 發見 舍利容器 (甘肅省博物館) 左에서부터 차례로 金銅箱形外容器, 銀製棺形中容器, 銀製 棺形內容器, 유리製舍利具



도판26. 發見地不明 石製棺形 舍利容器 (現 美國 Boston 美術館藏)



도판27. 山東省 濟陽發見棺形 舍利容器 (現 在日本)

遺品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오직 新羅에 만은 佛敎文化開花期의 면모를 보여주는 作品들이 남아있는데, 盜掘犯들의 不法行爲로 고판되어 世上에 나온것, 또는 原位置에서 遊離된것, 심지어는 海外로 流出된것들이 많아, 이 分野의 研究에 많은 混迷를 가져오기도 있다.

舍利莊嚴具는 佛敎信仰의 產物이지만 先人들의 生活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工藝品이기도하다. 우리는 이들속에서 外來의 文化를 받아들여 完全히 消化하여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祖上들의 創意力을 歷歷히 볼 수있다. 이러한 슬기로운이 담긴 舍利莊嚴具는 자랑스러운 民族의 遺産이 아닐수 없다.

〔註〕

- ① 日本書紀
- ② 李弘植·慶州佛國寺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韓國古代史의 研究)一九七一
- ③ 大正藏經 第一〇二四卷 無垢淨光大陀羅尼經 P·P 七一八C 七一九a (白山學報 二一號)一九七六
- ④ 國立博物館·金載元 尹武炳 感恩寺 一九六一
- ⑤ 李弘植·慶州狼山 東麓三層石塔內發見品(韓國古文化論攷)一九五四
梅原末治·韓國慶州皇福寺塔發見의 舍利容器(美術研究 一五六號) 一九五〇
『……小塔 九八基……』
杉山信三·朝鮮의 石塔 一九四四 『……單層塔婆를 千塔風으로 一〇〇 몇基를 打出하였다』(P九九)
이 두 日人은 정확히 세보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 ⑥ 佛國寺古今歷代記
- ⑦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佛國寺 一九七六
- ⑧ 李蘭暎·韓國古代의 金屬瓶(美術資料 第二三號) 一九七八
- ⑨ 拙編·韓國塔婆研究資料(考古美術資料 第二〇輯) 一九六八
- ⑩ 舊朝鮮總督府·慶州南山의 佛蹟 一九四〇
末松保和·新羅史의 諸問題
黃壽永·金石遺文 一九七六
- ⑪ 黃壽永·新羅皇龍寺九層木塔의 舍利具(東洋學三輯) 一九七三
〃 金石遺文

- ⑫ 金正基·新羅莊嚴具의 新例(考古美術 一三八、一三九號) 一九七八
- ⑬ 小杉一雄·中國의 美術 一九七四
- ⑭ 崔淳雨·法住寺捌相殿의 舍利藏置(考古美術 九一一) 一九六八
- ⑮ 黃壽永·前揭 註二論文
- ⑯ 金載元·松林寺塔(震檀學報 二九·三〇合併號) 一九六六
- ⑰ 張忠植·桃李寺舍利塔의 調査(考古美術 一三五號) 一九七七
- ⑱ 黃壽永·新羅塔誌石과 舍利壺(美術資料 一〇) 一九六五
- ⑳ 拙編·註九前揭書

※1 小倉コレクシヨン保存會·小倉コレクシヨン 寫眞集 一九八一
奈良國立博物館·佛舍利의 莊嚴
拙編·韓國塔婆舍利目錄 在日篇 參照

塔坪里란 地名도 塔이 있음으로서 비롯되었다. 中央塔은 新羅元聖王 때 國土의 中央을 표시하기 위하여 築을 잘 견는 두 사람을 뽑아 南쪽과 北쪽(당시는 大同江 以南)끝에서 같은날, 같은 시간에 國土의 中央을 向하여 같은 步調로 걷게 하였는데, 이곳에서 두 사람이 만났으므로, 中央塔이라 불렀다고 한다. 中原郡은 「나라의 가운데 별」이란 뜻에서 지어졌으며, 이 郡에 있는 忠州의 地名 또한 國土의 「中心地」라는 뜻인데, 「中心」두글자를 合한 忠성忠으로 고쳐 忠州가 되었다고 한다. 또 이곳의 半川이란 시내는 南北 끝의 境이 되는 시내라는 뜻이고 「韓半來」의 옛음이라 한다. 그리고 中央塔은 신라 善德王 때 金生이 盤松山에 절을 지은 뒤, 이 塔을 세우고, 그안에 고서적을 넣어 두었다고 하는 등의 傳說이 傳해지고 있다.

※2 金剛山에는 新羅의 麻衣太子가 亡國의 恨을 품고 入山하여, 國權回復을 위하여 軍事訓練하였다는 望軍臺가 있고(太子의 陵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음) 高麗王室 및 元王室과의 因緣, 朝鮮朝의 太祖李成桂와 韓氏夫人 그리고 末葉의 閔妃와의 관계등을 들 수 있다. 日政 때 楡岾寺五十三佛이 發見되어 有名하거나와 最近의 新聞報道에 따르면 金剛山에서 五〇〇餘年前에 만들어진 金銅佛像 一〇여구와 璣 사기단지 二개 등이 發見되었는데, 佛像의 腹藏品인 비단마름에 의뢰된 記錄으로 一四五一年(文宗元年) 제작된 것이 밝혀졌다고 北韓에서의 發表를 傳하는 新聞記事(조선일보 八四, 三, 一七)가 있다.